

# 국유지 불법 환수보상금 190억 '꿀꺽' 이석호씨 등 11명 구속

## 광주지검, 공무원 등 총 27명 기소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에 달하는 1억7천300만㎡ 규모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하고, 국유지 환수보상(국가가 땅을 사주는 것) 금액 190억원을 챙긴 전·현직 공무원 등 2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류혁상)는 5일 관계부처 공무원과 친·인척 수십 명과 짜고 서류 등을 위조, 불법 취득한 국유지를 국가에 팔아 거액의 매각 이익과 환수보상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 이석호(7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환수보상금 4억여원을 받은 이씨의 의붓딸 김모(41)씨 등 이씨의 친·인척 등 27명과 이씨에게 뇌물을 받은 관련 전·현직 공무원 5명 등 26명(10명 구속)을 기소하고, 도주한 공범 10명에 대해서는 기소 중이었다.

◇사건 개요=이씨는 2001년 4월~2004년 9월까지 친인척 등 27명의 명의로 국유지 605필지 214만여㎡에 대한 특례매각 이익금과 환수보상금 190억여원을 편취했다.

이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인 1971~1974년 관련 업무 종사자는 국유지를 취득할 수 없는 데도 친인척 등 35명 명의로 국유지 3만5천여 필지 1억1천800여만㎡를, 1980~1989년 국유지 매수 서류를 위조해 6천200여 필지 5천500여만㎡를 각각 취득했다.

이씨는 이 사실이 발각돼 1994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불법 취득

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취득무효 판결이 내려져 환수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민원이 잇따르자 재정경제부는 '선의취득 등기명의자의 경우 반환원인에 따라 감정가의 20~70%의 차등가격으로 특례매각한다'라는 특례매각 대상자를 확대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범행 수법=이씨는 1999년 12월 가석방된 뒤 이 같은 제도를 악용, 광주 시내에 개인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7~8명을 고용해 본격적인 특례매각 서류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친인척 등이 선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미 국가로 환수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122억원을, 위조한 매도증서를 이용해 68억원을 각각 챙긴 것이다.

이씨는 수 백억대의 보상금을 받아 전 처와 우체국 직원·택시기사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와 수신회 개를 만들어 자금세탁을 한 뒤 전 처 자녀의 생활비·혼수비용·고가 의류 구입 등으로 사용했다.

◇공무원도 연루=전·현직 공무원 5명도 이씨의 범행을 도왔다. 재정경제부·영남 국유지관리소·무안군청 공무원 등이 연루됐다. 이들 공무원

들은 이씨와 지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매각지침을 제정하는 것을 돕거나, 일부는 매각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만~1천5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검 특수부 관계자들이 5일 전직 공무원 이석호씨의 '국유지 불법 특례매각'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에 놓인 것은 이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위조 부동산 매도증서 등 사파박스 20개 분량의 증거서류와 수천여 개의 위조 도장과 고무인.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22년 묵은 이석호사건 수사 뒷 이야기

### 압수 서류 97상자·도장 고무인 2,179개

이씨가 불법 취득한 국유지는 지난 1994년 대법원의 취득무효 판결로 인해 대부분 환수가 됐다. 하지만 이번 '불법 국유지 특례매각 사건'이 터지면서 또 한 차례의 대규모 반환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수 소송에는 광주고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의 법무관 등 4~5

명이 참여하고 있고, 부족한 인력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어 소송비용 등 국가 재정 및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국유지 가운데 4천100여만㎡는 이미 환수 조치 했고, 1천여만㎡에 대해서

는 환수소송이 진행 중이며, 상당면적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가 내려졌다"며 "나머지 국유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추가로 밝혀진 국유지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행되도록 해 국가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증거물에 있어서도 역대 최대 규모였다. 검찰은 ▲위조 서류 등 문서자료 97상자 ▲서류 위조에 사용된 도장 544개 ▲고무인 1천635개를 압수했다. 이씨의 수사기록은 A4용지 1만 페이지에 이른다. 수사 인원은 지난 2년 동안 주임 검사 특수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와 검찰직원 7명·국세청 직원 및 각 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두 22명이 투입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위장결혼·유학생 신분 이용 불법입국

### 중·베트남인 등 359명 적발

#### 광주·전남 8명 구속

광주·전남지역에 위장결혼과 유학생 신분을 이용, 불법 입국한 조선족·베트남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35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 외사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불법 출입국위반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58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위장 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도모(여·37)씨 등 중국 조선족 5명을 공전자기록 등 부실하게 혐의로 구속하고, 500만원을 받고 도모 등 조선족 7명과 거짓 혼인을 해 준 김모(51·장성군 장성읍)씨 등 한국인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유학 온 것처럼 꾸며 입국한 뒤 광주·하남·소촌·광동공업단지 등지에서 일을 한 중국인 리모(21)씨 등 중국·베트남 유학생 116명과 이들을 취업시켜 준 하남산단 모 업체 대표 고모(54)씨 등 업무 3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

이들 유학생들은 ▲광주시내 3개

대학 ▲전남지역 5개 대학에 입학한 뒤 학교를 떠나 1~2년 동안 공단 부근에서 생활하며 돈을 벌었고, 일부는 아예 학교와 연락을 끊은 채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학생들이 적발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이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유학생 등 체류자격의 활동사범이 1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위장결혼사범 18명 ▲무자격 외국인 영여회화 강사 1명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불법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들은 저가의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인정. 통상 2천만원에 가까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수렵금지구역 엽총 '탕'...주민 2명 부상

해남경찰은 5일 사냥이 금지된 지역에서 쾡을 잡으려고 엽총을 쏘자 주민들에게 총상을 입힌 박모(47·경남 창원군)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씨와 함께 사냥을 한 김모(48·?)씨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에 해남군 산이면 간척지에서 엽총을 발사, 50여m 떨어진 곳에서 수로 설치 작업을 하던 마을주민 김모(35)씨 등 2명의 얼굴과 어깨 등에

총상을 입힌 혐의다. 박씨가 사용한 총은 100여 개의 작은 쇠구슬이 발사되는 산탄(霰彈)총이었으며, 피해자들은 공중에서 떨어진 산탄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집중단속을 벌인다.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남=박영욱기자 jopark@

## 함평농공단지 가스폭발

### 직원 3명 중화상

5일 오후 4시35분께 함평군 화교면 죽정리 농공단지 내 E에너지 재생공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직원 이모(45·광주시 남구 월산동)씨 등 3명이 얼굴과 가슴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어 전남대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당시 지름 4m 크기의 목욕탕 등에 사용하는 재생연료 저장탱크 배관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저장탱크 내 연료 가스를 미처 다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던 중 누출된 가스에 불씨가 튀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함평=박영욱기자 pyj4079@

## 나원침 (7350) 김장독



다들 물어봐 신제품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로 대우빌딩 KCC함평, 시스텔함평 생산·시공 KCC건설, 연세대로 대우빌딩 (주)본드나리 KCC건설, 연세대로 대우빌딩 실리온·방수제·점착제·타이민 KCC건설, 연세대로 대우빌딩

## "연예인 시켜주겠다" 피어 성추행

연예인 매니저를 사칭해 "걸거러 캐스팅을 한다"며 여중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30대 이혼남이 경찰서행.

5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김모(36·장성군 황룡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께 방과후 집으로 돌아간 모 여중 3학년 Y(15)양에게 길을 묻은 뒤 "예쁘게 생겼는데 연예인을 해 볼 생각 없느냐"고 꼬드겨 자신의 카니발 차에 태워 가슴 등을 만졌다.

김씨는 앞서 같은 달 10일에도 장성군 장성읍 공설운동장에서 가출한 여중 1학년 K(13)양을 동일한 수법으로 차에 태워 성추행했다. 김씨는 "내가 스타를 많이 키워다. 몸매가 좋아야 하는데 살을 빼고 관리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겠다"고 속여 여중생들의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성=고재범기자 jb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ungnam Real Estate' (중남부동산)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details. The ad includes a logo at the top left and several columns of text listing different types of properties like houses, apartments, and commercial buildings, along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features.